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KBS본부



[성명서]

2021. 2. 9. (화)

우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연구관리동 1층 (연락처) 전화 02-781-2980 · 팩스 02-781-2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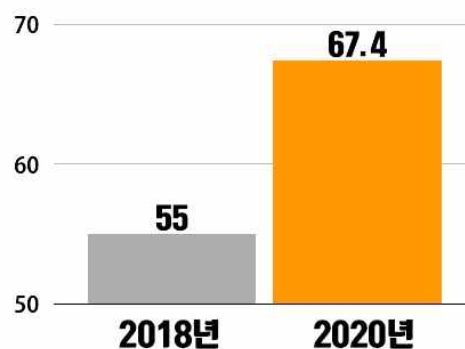
1주년 지역 '뉴스7' 방송분권 새 지평.. 지속가능성 위한 지원 계속돼야

최근 지역 뉴스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뉴스 7'이 1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8년 제주총국의 시범사업으로 첫 발을 댄 '뉴스7'은 KBS안팎에서 현재 9개 총국의 간판 뉴스로 연착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뉴스7 지역 간판 뉴스로 연착륙 中

먼저 한국방송학회가 발표한 'KBS 뉴스 7 지역화 1주년 심층평가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시작한 '뉴스7'에 대한 전반적인 시청자들의 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7점을 기록했다. 두 해 전보다 10점 이상 급등한 것이다.

지역 뉴스7 시청자 만족도 조사



<그래프> 만족도 조사 (2018→2020)

지역 자율적인 40분 편성을 핵심으로 하는 '뉴스7'은 지역방송분권 차원에서 KBS 지역 구성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 역시 '뉴스7'을 지역방송의

새로운 혁신 모델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인권과 젠더, 지역문화 등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의 담론을 과감하고 실험적인 형식으로 다룸으로써 가능한 평가이다.

‘뉴스 7’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지역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밑바탕이 됐다. 여전히 충분치 않은 인력과 예산, 경험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직 변화를 바라는 열정으로 이를 극복해 가고 있다. ‘열정페이’만으로 뉴스7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1주년을 맞은 지역뉴스7이 방송분권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 방송 분권의 혁신 모델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던져진 과제가 적지 않다.



9개 총국 <지역 뉴스7> 화면 갈무리

‘심층뉴스 강화’ 최대 과제..지속가능성 담보할 정책 마련돼야

방송학회의 연구보고서에도 나타나듯 지역 시청자들이 뉴스7에 가장 바라는 점은 ‘심층뉴스 강화’였다. 시청자들은 ‘뉴스 7’이 심층뉴스를 통해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멈추지 말고, 주요 의제를 발굴해 대안까지 제시하는 역할까지 기대한다는 뜻이다. 단편적이고 관행적인 뉴스를 탈피해 지역 현안을 깊이 있고 지속해서 보도하는 저널리즘을 시행하라는 숙제를 던진 것이다.

뉴스7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람 몇 명 더 뽑아주고 예산 몇 푼 더 내려주는 생색내기 지원 수준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지역방송국에 대한 기능조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의 인력 운영으로는 뉴스7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

럽다. 특히 주52시간제 도입과 맞물려 현장에서의 고통분담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회사는 지역 뉴스7이 지속가능한 지역의 확실한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한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지역성을 강화하는 공적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직무재설계(안)을 던져 사기를 꺾을 것이 아니라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거시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란 아주 쉬운 결정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까지 들여온 열정과 지역사회에서의 혁신 모델로서의 가치가 너무 크다. 경영진이야 임기를 채우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지역뉴스7은 경영진의 임기와 함께 사라지는 실험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지역방송국 기능조정 결과와는 별개로 지역 뉴스7의 지속성을 담보할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뉴스7은 이제 첫 걸음을 뗀 뿐이다. 성과는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앞에 던져진 숙제도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지역 뉴스7이 지역 방송 혁신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사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2021년 2월 9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